

이렇게 촌캉스 열풍이 불면서 조용했던 시골 지역은 ‘몸빼 바지’를 입은 젊은 층으로 가득해졌다. 이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시골 할머니 집 같은 숙소를 찾는다. 사람이 적어 한적한 지역이면 더욱 좋다. 조금 딱딱하지만 서늘한 마루에 누워 집밖 풍경을 감상한다. 음식 배달도 어려우니 예능 프로그램 속 연예인처럼 가마솥에서 밥을 지어보고, 자연에서 취한 재료로 삼시세끼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건물과 차량의 불빛에 가려졌던 도심의 밤하늘과 달리 캄캄한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도 감상한다.

카페도 시골부, 일도 시골에서

예전에 농촌휴양마을을 찾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또는 회사 등 단체 여행객이었다면 최근에는 혼자나 연인, 친구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가 청정 자연 속 여행지로 농어촌에서 방문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도 시골집이 인기다.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기 어렵다면? 시골부가 일품인 카페나 식당을 찾는다. 요즘 인기있는 경기도 카페들의 대형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바로 끝없이 펼쳐지는 논과 밭이다.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명 ‘논명’(논 보며 명 때리는) 또는 ‘밭명’(밭 보며 명 때리는)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은 묘한 조합이지만, 도시의 갑갑함에 질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일부러 이런 공간을 찾는다.



이뿐이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일하는 워케이션도 늘고 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사람들은 한적한 시골에 머물며 일을 한다.

최근 ‘이도향촌(離都向村)’ 아닌 ‘5도2촌’ ‘4도3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4~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3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뜻이란다. 인간이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을 가르켜 ‘녹색 갈증(biophilia)’이라고 한다.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도시에서 살아온 현대인들은 녹색 갈증에 시달려 시골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닐까. 🐦

